

총회장 김양인 목사 취임 감사예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장에 ... 성경대로의 복음전파 다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총회장 김양인 목사(목양제일교회)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6월 12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안로 목양제일교회 대성전에서 드려져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온 종교다원주의를 비롯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국가안보를 위해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탁정신 목사의 성경봉독, 목양성가대의 찬양,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엠 5:6-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지도자는 지도이념이 확고해야 하며 목표와 신앙관이 확실해야 한다"라며 "모세가 탁월한 영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 명료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행한지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목사는 또 "오늘날 한국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혼합주의 다원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그릇된 길로 몰아가는 무리들이므로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며, 성경대로 복음을 믿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설교: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 성경봉독: 목양성가대, 대표기도: 재무 탁정신 목사, 사회: 총무 엄기설 목사, 축사: 서기 차흥식 목사, 축사: 목양제일교회 김양인 목사, 축사: 목양제일교회 박영찬 목사, 축사: 목양제일교회 김양인 목사, 축사: 목양제일교회 김양인 목사, 축사: 목양제일교회 김양인 목사, 축사: 목양제일교회 김양인 목사



교단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6월 16일(금) 교단 총회총회장 이용주 목사(사단법인 기독교단협의회 총경대표회장)와 함께 6.25 67주년을 앞두고 육군 중동부전선 제1공병여단을 방문하여 부적 대위진 남세도 국도방위를 위해 철통경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날 이용주 목사는 엠 3: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휘관이 되어 장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더위도 잊은 채 철통방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했다. 박순용 목사는 부대장과 간부, 전 부대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도방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도를 통해 당부했다. 군선교위원회에서는 준비해간 위문품을 전달했다.

2017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7년 7월 10일(월) ~ 13일(목) 3박 4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등록마감 : 2017년 7월 7일(금) 17:00
- 문 의 : 02)2677-0692~3(본 대학원 행정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강박케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히 3:7~14)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들을 열거하고 분류해 보려고 하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종류도 많고 각 사람의 처지와 관점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불행이며,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예방하며 치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일들에 대하여 원직적이고 근본적인 대담을 교훈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명확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강박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강박함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강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반항하다’ ‘완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강박함’이란 의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자신의 위치, 견해를 확고히 하는 태도이며 또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주로 하나님 앞에서의 반항적인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하여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 더욱 큰 불행을 자초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강박하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교만이 마음을 강박케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애굽 왕 바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재앙이 임하는 동안에는 굴복할 것처럼 하다가 지나가면 다시 강박하게 되었습다. 바로의 강박한 마음은 그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둘째는, 탐심이 사람의 마음을 강박케 합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타당화 시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만성이 되어지고 심령과 영적 감각이 둔해 집니다. 셋째는, 무지가 마음을 강박케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무성케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전에 그토록 강박했던 것이 무지 때문이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딤후 1:12,13) 영적 무지는 하나님 앞에서 강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불복종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우리가 강박케 됨을 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함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위해 서로 심방하고 만나야 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강박케 됨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박함을 그대로 내버려두셨습니까. 또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시 81:12)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면 우리도 타고난 본성과 죄의 유혹으로 인해 강박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강박케 됨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히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형벌이며 심판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마음이 강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받았던 복과 은혜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강박케 됨을 면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기업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등 행사 점검

제66차 총회 제2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김양인 목사) 제66차 총회 제2회 임원회가 지난 6월 12일(월) 총회장 취임예배 후 목양제일교회에서 열려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더욱 기도해 힘쓸 것과 여름휴가철을 맞아 청소년 연합수련회 및 목회대원 계절학기 등 각종 은혜로운 행사들을 잘 치르기 위해 점검과 협력을 통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의정인 총회장 김양인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차흥식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서장이 이어졌다. 보고서장에서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66차 총회장 김양인 목사 취임예배 등의 내용들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탁정신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임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은퇴 보고 건이 보고 결의되었으며 66차 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각 국장과 각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료 검토 후 다음 임원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기타사항으로 교육국 주관 청소년 연합수련회 7월 중 개최, 고시위원회 주관 목사고시위원회 모인, 목회대원 상반기 계절학기 개설,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2017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 66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민족복음화대성회·체육대회 준비기도회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원로목회자 체육대회 7월 4일 개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은 지난 6월 8일(목)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서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오는 7월 4일(토)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성회와 체육대회 준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기도회는 준비위원장 김진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한교연 명예회장 김동권 목사의 대표기도, 이상철 장로의 성경봉독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이상모 목사, 김진호 감독의 나라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위해, 원로목회자 체



육대회를 위해 각각 기도하고 기지협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고 2부 순서로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의 인사말, 지덕 목사의 환영사, 이태희 목사의 대성회 취지설명, 한은수 감독의 체육대회 취지설명에 이어졌다.

문세광 목사, 이용규 목사, 송용필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캄보디아 김상봉 선교사에게 축하인사를 갖고 김 선교사를 격려했다.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는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오는 7월 4일(토)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종교개혁 정신 이어받아 사회변혁 힘써야”

예장통합·합동,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와 합동 총회(총회장 김진규 목사)는 지난 6월 15일(목) 연동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장로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전한 이성희 목사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방주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의 풍조와 논리에 휩쓸려 버렸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이 현재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바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강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이 맡았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21세기 한국교회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임 총장은 종교개혁은 종교적 영역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박정신의 ‘구한말 조선에 온 칼뱅주의 구학파’란 글을 보면 칼뱅주의 구학파가 조선의 봉건적인 신분제별 남존여비, 높을과 축첩 등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운동을 전개했다”며 “우리의 역사 안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그 신학과 신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모든 인간적 하식과 우상을 깨뜨리며 오직 말씀 즉,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시대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기총 ‘제2의 후원의 밤’ 개최

전기현 장로 “내년까지 200명 정도 후원자 만들 것”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의춘)의 후원이사장 전기현 장로 초청 후원의 밤이 지난 6월 15일(목)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전기현 장로(살롱장로교회, Chun's Group 회장)는 “세기총 후원이사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임원분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서 “작년에 50명 정도 초청해 제1회 후원의 밤을 했고, 올해는 80명 정도 초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지 200명 정도 후원자들을 통해 세기총이 무슨 일든 부담이 없이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서 “후원이사장으로 일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외국인인 만든 도서관 중 가장 많은 13만2천 권의 도서를 보유한 것에 대해 전기현 장로는 “아버지께서 2만 권의 도서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었다”라며 “미국에 오면서 책을 가지고 오는 이민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께서 도서관을 만들라는 유언을 주셔서 도서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안 헤리티지 도서관은 주에서 가장 많은 동양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현 장로는 신앙에 대해서는 “생후 이틀부터 주일성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을 빼놓은 적이 없다”라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도 도서관도 지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장기기증은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일

다섯 교회 성도 1,067명 장기기증 서약

지난 6월 4일(주일) 생명나눔을 약속하는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전국 7개 교회에서 드려졌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영안교회(담임목사 양병희)에서는 1993년에 이어 두 번째 사람의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양 목사는 “장기기증은 우리가 죽은 뒤에 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삶이다. 내가 죽은 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각막을 기증해

빛을 밝힌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에게 생명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기기증 서약을 독려한 결과 총 864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을 서약했고, 14명이 생존신장기증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희문교회에서도 설립 120주년을 맞아 사람의장기기증서약식이 진행됐다. 차재일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 땅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것이 존귀한 삶이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 맞아 온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운동에 모두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며 독려했고, 사회봉사부장인 이재문 장로도 성도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취지문을 낭독하며 성도들에게 서약을 독려했다. 그 결과 121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하며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을 넘어 의정부, 포천, 부산 지역에서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장곡교회(담임목사 유태형),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교회(담임목사 이경우), 부산에 위치한 대동교회(담임목사 한성호)에서 사람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전국 5개의 교회에서 사람의장기기증서약예배가 드려져 총 1,067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하였다.



독립유공자 가족 초청 독도수호기도회

한교연 제6-4차 임원회 개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6월 8일(목) 한교연 회의실에서 제6-4차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원회는 한기총과의 통합 추진 건을 보고받고 현재 한기총의 직무대행체제로 인해 통합 추진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교연이 한국교회 통합에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한교연은 지난 제6-3차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임시총회에서도 한기총과의 통합의 결립돌아있던 다각방 문제가 해결된 만큼 통합 추진위(위원장 고시영 목사)로 하여금 양 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적인 작업에 나서도록 위임한 바 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 이근복 목사)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6월 15일



오후 4시에 한교연 회의실에서 한교연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간의 업무협약(MOU)을 공식 체결해 한국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및 교회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원회가 추진하기로 결의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100년 전 중국 연변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기독교 인사들의 숨은 역사를 발굴해 CBS기독교방송과 협력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함으로써 기독교 관점에서 3.1운동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

해보는 뜻깊은 사업이다.

임원회는 또한 크리스찬아카데미 뿐 아니라 일본 복음주의연맹(JEA)도 선교협약 체결을 요청해 음에 따라 향후 모든 협약 체결을 대표회장이 사무처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광복 72주년을 맞아 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순교자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가족 초청 독도수호기도회 등 기념행사를 갖기로 결정했다.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 구성

대표회장에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취임

(사)우리민족교류협회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대표회장 오정현 목사(사랑의 교회)의 취임예배가 지난 6월 12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사당 귀빈홀에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조직위 운영위원장 서대천

목사의 사회로 상임고문 이선구 목사의 기도, 사업본부장 홍정선 목사의 성경봉독, 박선희 목사(사.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의 창 50:15-21절을 본문으로 한 주님나라 이루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특별기도시간



조직위 상임고문 김상복 목사의 축도 후 이어진 추대와 화합의 시간에는 대표조직위원장 김영진 장로의 개회사, 송기학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 김영진 위원장·송기학 이사장에 대한 추대배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덕룡 전 정부장관은 격려사를 낭독하며 경기도지사·임신형 전 한기총 대표회장·체의송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유성영 공동조직위원장은 축사로서 대표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제9회 장로교의 날 9월 1일 개최

한장총, 준비위 모임 갖고 추진일정 논의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는 지난 6월 8일(목) 제9회 장로교의 날 대회 준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회 방향과 내용,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2009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여 요한 칼빈 탄생일인 7월 10일에 시작한 ‘장로교의 날’ 대회는 금년에 제9회를 맞게 된다. 금년부터는 7월 10일에서 한국 장로교 총회설립일(1912.9.1)인 9월 1일로 변경해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예배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준비의 중점사항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의 개혁신의 다짐과 장로교 총회 설립 102주에 맞춘 장로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개혁, 솔선수범으로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지도자가 되며, 평양대부흥 110주년을 회고하여 한국교회의 재부흥

과 세계선교를 도모하는 대회로 맞추기로 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조직을 보강하고 한장총 직전대표회장 백남선 목사를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회원교단 직전총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하였다.

사무총장 김영일 목사가 설명한 대회 계획안에서 행사는 1부 개회식, 2부 장로교 전통예배, 3부 종교개혁 선포식으로 총 3부로 나누어 실시하며 키워드로는 ‘다시 코란테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개혁: 거룩과 사랑’의 의미를 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신대, 제13회 중화연대회 금상 수상

최도환·김진수 학생 ‘공연’(회화) 부문에서

한중문화우호협회 북경경경협 국립공원이 주최한 제13회 ‘중화연대회’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중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최도환, 김진수 학생이 ‘공연’(회화)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3일(토) 국외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대회는 매년 한국소재의 귀화전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여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중국어 프리젠테이

션 또는 공연 종목으로 지원하며, 본 대회를 통해 양국 간의 문화우호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최도환, 김진수 학생은 선교중국어학과에 입학한 후 중국어를 처음 배우지 1년여 만에 중국어 경연대회에서 패기를 이룬 것이다. 이날 선교중국어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적극 응원하였고,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중국어학과는 중국전문인으로 활약하는 기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기 내내 실습 기자재를 갖춘 강의실에서 원어민 교수와 함께 살다시피 하며 중국어를 습득하고 있으며, 학생 전체가 방학 때마다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고 있다.



6월 월례회 갖고 하계수양회 준비 및 회무처리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6월 15일(목) 오전 11시 순복음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갖고 각종 지방회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윤해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사회로 안병성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롬 1:13 말씀을 본문으로 '섬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도바울이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혀 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고 전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황연선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의 현금기도, 지방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2부 회무처리 순서에서는 하계수

양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순복음갈릴리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은혜 가운데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6월 정기 월례회, 웃음과 화합의 시간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지난 6월 13일(화) 오전 11시 익산 합리순복음교회(담임 이광호 목사)에서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박종석 목사(백영전원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사 45:1-3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기쁨 부으신 고레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방회 목회자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넘치길" 축복했다.

이어 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좋은나무교회)가 지방회를 대표해 직전회장 최병진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증경회장 김중호 목사(순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좋은나무교회)의 인도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으며, 월례회 후에는 준비된 선물을 제비뽑기로 나누며 웃음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합리순복음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찬과 카페푸드트럭으로 목회자들에게 각종 음료를 제공하였으며,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암곡교회) 기도 후 오찬을 함께했다.

식사 후 합리산을 등반하고, 시우나 교제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월례회를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6월 13일(화) 오전 11시 울진갈릴리르소망교회(담임 김영준 목사)에서 6월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정진학 목사(대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도명

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와 총무 정진학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롬 5:5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며 "우리에게 있을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를 준비하고 전하자"고 힘써 강조하였다.

이어서 성령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찬양

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하민은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현금기도와, 직전회장 신재영 목사(새길전교회)에게 그동안 지방회장으로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이어진 2부 월례회와 회무처리는 증경회장 진영갑 목사(주산양교회)의 기도를 시작으로 회장 김영준 목사의 인도로 총무의 회원 점령 및 총무 보고와 회계보고를 마치고, 새롭게 타 교단에서 대구경북지방회로 가입하는 상주 반석교회 정인철 목사의 지방회 가입에 대한 인준을 받고 직전회장 신재영 목사의 기도로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서 장소를 옮겨 갈릴리르소망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월례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순복음향기교회 창립예배, 새성전 건축도...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욱 목사)는 지난 6월 15일(목) 천안시 성남면 신사로길 42-23에 위치한 순복음향기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화한다는 큰 뜻을 품고 복음사역에 충성과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침기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증경회장 임영신 목사(부활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 목사는 행 6:8-15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일의 주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이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며 축복했다.

이어서 순복음향기교회 창립선포와 취임패 증정, 김윤복 목사(중앙생교회)의 축사, 서기 윤옥 목사(성신순복음교회)의 현금기

도 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의 축도로 창립예배를 마쳤다.

특히, 순복음향기교회는 창립과 함께 교회건축공사를 시작하기에 건축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에는 식사를 함께하며 다시 한번 청림을 축하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경기중부지방회

경기중부지방회(회장 김동문 목사)는 지난 6월 3일(토) 오전 11시 사랑의능력교회(담임 박수진 목사)에서 사랑의능력교회 최웅주 전도사의 목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예배는 사랑의능력교회 담임 목사이며 경기중부지방회 재무회계를 맡고 있는 박수진 목사의 사회로, 총무 최남순 목사(양평영광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이성일 목사(천양교회)의 성경봉독, 사랑의능력교회 성가대와 찬원화 목사(순복음비전교회)의 특송, 지방회장 김동문 목사(동산중앙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신 38:29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음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이어서 임직예배는 안수위원장 김동문 목사의 집례로 임직을 받은 최웅주 목사의 첫 축도에 이어 김연태 목사(예수능력교회)의 권면, 영지대교배 교역교회 이성훈 목사의 축사, 김정준 목사(사랑의능력교회)의 현금기도, 최웅주 목사 사모의 현금특송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웅주 목사는 인사말에서 마지막 시대

에 사명 맡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광고와 인사를 마쳤다.

식사 후 진행된 6월 월례회는 지난 일본 선교여행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추후 진행될 외국 선교여행에 대해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자 결의하고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되는 은혜로운 지방회가 되자고 다짐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세계로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청주지방회

청주지방회(회장 정의섭 목사)는 지난 6월 10일(토) 세계로교회(담임 김선경 목사)의 성전이전 감사예배를 가졌다.

총무 오정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부회장 김상훈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정의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시 84:1-12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통하여 축복이 오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삶에 넘치는 은혜가 쏟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 가까운 전안 지역의 목회자



들은 물론 먼 곳에서도 찾아와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로교회를 축복했으며, 가까운 식당에

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세계로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며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자”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이창모 목사)는 지난 6월 13일(화)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인천국제순복음교회에서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의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조성진 목사(충만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김자엽 목사(새소망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회장 이창모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목사는 사 3:12-30 말씀을 본문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악하고 혼탁한 이 세대에 깨어있는 목회를 할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 이한숙 목사(사랑순복음교회)



의 현금기도와 증경회장 심현일 목사(임마누엘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증경회장 심현일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의장 이창모 목사의 인도로 개회하고, 서기 조성진 목사의 회원 점령과, 총무 송준호 목사와 회계 이한숙 목사의

보고로 이어졌으며, 이후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에 회장의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예배 후에는 인천국제순복음교회에서 미리 예약한 갤럭시 호텔 뷔페에서 즐거운 교제와 함께 오찬을 나누며 모든 월례회 행사를 마쳤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것 약속

안산시흥지방회

안산시흥지방회(회장 이규아 목사)는 지난 6월 15일(목) 오전 11시 산성순복음교회(담임 이규아 목사)에서 6월 정기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윤애늬 목사(순복음물안동신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오선분 목사(성원교회)의 기도, 회장 이규아 목사(산성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목사는 계 2:1-7 말씀을 본문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고 권면하였다.

이어 2부는 김영학 목사(생명나무교회)의 개회기도로 시작하여, 총무보고로 2017년 예산 및 지출결의, 각 위원회에 위원장 및 각 부



처장 선출 내용을 보고하였다.

선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 목사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재무 회계 이경자 목사의 보고로 2부 순서를 모두 마쳤다.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며 서로 위로하는 단합의 시간을 갖고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안산시흥지방회 회원 모두 힘써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자랑하자고 다짐했다.

■ 생명의 말씀 ■



김 상 용 목사

· 교단 중경총회장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당회장
· 청주지역 기독교연합회장 역임
· 순복음청주신학교 학장
· 한국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 역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소명과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음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8-20)고 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마리아 성 밖의 네 분동령지는 아랍 진영에 갔는데 모든 군사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서로 양식을 나눠 먹고, 보물을 숨기다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함으로 그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 다. 죄인인 사마리아 여자도 전도했고, 나이만의 여종도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또한 전도의 대상은 만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중국인, 스리랑카인, 미국인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동서양 오대양 육대주를 막론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회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 성공적인 전도 방법

1)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가장 기본되는 사항으로써 즉,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16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는 말씀처럼 그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 복음 전파에 전 생애를 바쳤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전 5:17)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변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그들이 보고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큰 전도의 증거가 됩니다.

3)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꾀박당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구역장은 10명의 구역원이 1명이 되어 어찌 된 일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에베드로라고 하면 피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구역에배를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장은 구역원이 없어 손녀딸을 데리고 에베를 드렸더니 크게 부흥했습니다.

4) 최선을 다한 후에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필로우 크릭의 교육목사인 ‘리 스트로벨’ 목사는 ‘사기와 트러블’ 법률 담당기자로 14년 간 일하다 회심했습니다. 그가 기자로 일했을 당시, 마감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마감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마감 스트레스를 잘 넘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편집국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난 그 목사님은 신문사에서 전한 직장동료에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동료 일에도 불구하고 불쾌할 정도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낙심을 한 그 목사님은 전도를 그만 두었고, 그 일을 새끼뿔에 꽂아버렸습니다.

몇 년 후, 그 목사님은 기자 일을 그만 두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자가 스트로벨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

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이 목사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보는 사람의 인사를 받은 그 목사님은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그 중년 남자는 4-5년 전에 실직을 당해서 그 신문사 편집실 바닥에서 쪼그리고 앉아 타일을 깔면서 스트로벨 목사님이 직장동료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도내용을 엿듣던 그 중년 남자는 그 전도가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스트로벨 목사님께 감사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롬 1:17)는 말씀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기관차에 인간의 객차를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조폐를 시의회가 몰래 만들어 놓고 이를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적폐’가 아닌가?

‘인권’이 뭔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모범도 없는 조폐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참다운 ‘인권’ 인지 묻고자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조폐만 만들어 놓았다고 ‘인권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지체들은 시민들의 합의를 통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법과 행정을 펼칠 때, 그것이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요, 인권이 중시되는 국가로 가는 길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 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부 지지체들과 지지체장들이 비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기형적 사회가 되고 있다.

동 정

“성경교회, 실재적 연합 이루겠다”



한국성경교회연합회 제8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목) 인천 새빛교회(담임 신상범 목사)에서 개최됐다. 기독교대 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등 3개 성결교단의 모임인 한국성경교회연합회는 한국교회 연합에 뜻을 같이하며 8년 전 대동했다.

국민가수 남진 장로 취임



국민가수 남진이 지난 14일(수)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 프라미스에서 열린 장로 장립예배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았다. 한국 가요계의 한 시대를 풍미한 명실상부한 국민가수요, 영원한 오프로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남진, 그런 그가 장로로 장립받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부회장



성결대학교 윤동철 총장이 지난 15일(목)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는 2010년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들이 지구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협의체며, 현재 경기도 내 62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침 부흥사회장에 정희량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부흥사회는 지난 2일(금)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대표회장 정희량 목사를 선출했다. 정 목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산적한 문제와 영적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부흥사회를 이끌어가게 된 것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기도로 섬기고자 한다”며 “침례교회에 부흥의 계절을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인권 선언’ 자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의 약3분의1이 ‘인권조례’나 ‘시민인권헌장’ 등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원고’를 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는 대부분 처벌과 강제성을 띠고 있어 본체가 심각하다. 그런 성격의 ‘조례’를 만들려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안이 없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조례’부터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모범(母法)이 없는데 자법(子法)이 먼저 태어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 참다운

인권을 위하기보다는 특정 시안에 목적을 두고 있어 본체가 되고, 대다수의 양심적인 국민들을 ‘억제법’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국민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는 본체가 있는데 이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본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인권’의 소중함과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인권’을 빌미로 서구 사회가 차용하고 있는 비윤리, 비도덕적인 것까지도 그 범주에 넣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바심이 결국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사례로 발생하여 시민들을 분노케 한다. 충남의 0시에서는 지난달 19일 “00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조례”를 입법예고 없이 가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 시의 「규칙」 가운데 「조례안 예고」를 보면, ‘의장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예고’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이를 시민들이 항의하여도 ‘절회’할 수 없다는 이상한 배정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난다. 주민을 위한다는 조례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이를 뒤늦게 알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조례’가 왜 필요한가?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충남 도지사가 재의(再議)를 요구하던지, 시민들이 폐지/개정안에 대한 ‘주민 발의’를 통하여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 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부 지지체들과 지지체장들이 비민주적이고 반시민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하는 기형적 사회가 되고 있다.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소설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영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출신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5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

‘빛(채무)에서 쉽게 벗어나는 비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한 병 남은 기름으로 빈 그릇에 가득 차는 축복을 받아,
“먼저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는 말씀대로 그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을 먼저 갚아야 한다.



빛(채무)이란? 사전적 정의로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한다. 하나님은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욥 13:8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빚쟁이가 되어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욥 1:14, 욥 8:12 말씀에 “우리가 복음의 빛진 자”라고 말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빚(채무) 때문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빛의 빚에 걸려 있다. 가계부채 1,300조, 국가부채 1,000조, 교회부채 10조 시대, 그러나 현대사회는 빛을 권하는 사회다. “전화 한 통화면 대출 오케이” 빚지라고 광고하는 나라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내 인생에 도적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요 10:10)

이 도둑은 인류의 시작부터 거짓말과 유혹으로 범죄 하게 하여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단절시켰다. 그때부터 경제문제의 어려움이 시작 된 것이다. 이 도적은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건강과 행복과 물질을 훔쳐 갈 것이다. 이 도적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에게 존재 한다.

그러므로 성실하 열심히 애써도 도적질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도적을 잡아야 한다. 도적을 잡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성경적 경제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고”(요일 3:8)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요 10:10)이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청산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요 19:30).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빼앗긴 복과 경제를 다시 찾아와야만 한다.

성경은 빚(채무)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경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빛을 지면 사람의 종(노예)이 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전 7:23)

왕하 4:1-7 말씀에 선지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비탄에 빚진 죄인이 되어

채주들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다. 생도의 아내는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한 병 남은 기름으로 빈 그릇에 가득 차는 축복을 받아, “먼저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는 말씀대로 그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빛을 먼저 갚아야 한다.

사람들이 빚(채무)을 지면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부채의 부담이 삶을 지배하고 마는 것이다. 돈을 벌어도 내 마음대로 돈 쓸 권리가 없다. 빚을 갚는 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돈 벌라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적은 빚은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신 28:12).

지금 버거운 빛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먼저 빛을 갚아라.
빛을 갚기 시작하는 날부터 빛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빚도 빛을 갚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빚진 죄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형편대로 비싼 이자부터 갚되 금액이 적은 것부터 갚아 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빚을 갚는 순서를 정해서 높은 이자부터 갚아야 한다. 카드대금-일반부채-제2금융권-대출-융자 등 빛 중에도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다. 빚을 갚기 시작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빛이 청산된다. 당신은 빚 갚는 재미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빚을 갚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도 반드시 저축을 병행하라.

경제란 살림살이라는 말이다. 성경에서 살림살이를 가장 잘한 여인은 잠 31:10-31에 등장하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말한 현숙한 여인이다. 지혜롭게 살림살이를 잘해야 가정경제가 부흥되는 것이다. 저축의 유익성은 유동성 자금 확보로 기회비용이 된다. 성경에 저축으로 성공한 사람은 요셉이다. 애굽을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다.

3) 신용카드사용을 절제하라.

신용카드사용을 절제하라. 신용카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충동구매 가능성이 높아 평균 30%를 더 지출 한다는 통계다. 신용카드사용은 빚을 당겨쓰는 것으로 다음 달 소득을 저당 잡히는 것이다. 연체이자 28-29%, 돌려막기 현금서비스수수료 20%, 합법적 고리대금이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라. 카드빚은 만사를 제쳐놓고 해결해야 한다.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상황이 되면 당장 카드를 잘라버려라. 3개월만 고통을 참으면 악성 채무의 은둔자에서 자유하게 된다.

4) 보증을 함부로 서지마라.

내 잘못이나 실수로 인한 실패,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로 패가망신하게 된다. 잠 22:26,27 “너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지 않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5) 생활을 구조 조정하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매각하여 빚을 갚아라. 아파트 평수를 낮추거나 필요하다면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전세로 바꾸라. 하세를 부리는 사람치고 부자가 사는 사람 없다. 빚을 갚을 때까지 철저하게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 빚을 무시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평생 종노릇하고 살든지 크게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

6) 충동구매를 하지 말라.

백화점에 갈 때 뱃속을 든든히 채우고 가라는 말이 있다.

홈쇼핑 광고를 보지 말라. 10명 중 3명이 충동구매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

7) 부수입을 찾아라.

8)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중복보험을 즉시 해제 하라. 중복보험은 보험회사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9) 빚을 갚는 것을 제대로 포기하지 마라.

빚을 지고 있으면 행복은 먼 이야기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빚이 있으면 내 것이 아니다. 힘들게 일해서 높은 이자 돈 갚아 주며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경적 경제부흥의 복을 받아 먼저 빚을 갚고, 꾸어주고, 베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한다.

10)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부자가 되라.

재산은 도둑맞을 수 있지만 복은 누가 가져갈 수 없다. 성경적 경제부흥을 통해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란 무엇일까요? 다음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한다.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화학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대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예술선교의 신학적 배경 ②

2. 선교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사회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에 있다. 또 이러한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만큼 지금 기독교는 세계 도처에 널리 전파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는 성공을 거두었는지 모르나 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현대교회가 고민이 있다. 이 점을 SJ Parker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교회에서의 복음적 지도력도 거의 사라졌고 또 교회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적 윤리를 대신하여 세속적 인본주의, 물질주의, 공리적 실용주의가 서구 기업체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 문화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으며, 수익성(Profitability)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가치관이 되고 있다. 신앙이 깊은 기업가들조차도 신앙과 기업활동을 양립시켜 살게 되었다.” 요컨대 교회가 선교보다는 상업적 이기주의로 전락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복음적 윤리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교회의 일차적인 기능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도 단순한 의식으로서의 예배, 예배를 위한 예배에서는 안 된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서 공동체적 삶의 양식으로 드러질 때 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연합하여 화답’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예배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 ‘서로’라는 ‘이웃’을 찾아 보기 어려운 이웃 상실, 이웃부재(不在)의 현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오늘의 선교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George W. Peters 박사의 지적은 적절하다.

“교회 성장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교인수가 늘고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서 교인들이 살고 배우며, 봉사하고 교제하며, 관리하고 고난 당하며 결국 거기서 죽는다. 여기에서 그들은 공헌도하고 그들의 기쁨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도 갖는다. 바로 여기에서 그들은 그들의 회중과 주님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진다. 실제적으로 지역교회(회중)는 우주교회의 현시(Manifestation)가 된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삶의 현상이 바로 지역사회이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복음적 지도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오늘날의 선교가 이같은 지역 사회의 복음화에 역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교의 목표가 세계 복음화에 있다고 해도 개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역시 그 지역 단위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교회 지도력 회복’ 콘퍼런스

한국교회건강연구원 29일 열린광장 연다

한국교회건강연구원(이효상 원장)이 ‘세대교체기의 한국교회, 지도력 회복’이라는 주제로 심도깊은 토론 형태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오는 6월 29일(목)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17층 강당에서 교회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열린광장으로 진행한다..

주말표지로는 ‘전인하고 후임의지도력 계승’을 최이우 목사(종교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향한 패러다임 쉬프트’ 양희승 교수(연세대 경영학),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는 지도력회복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 등이 나설 예정이다.

이효상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열린광장은 한국교회의 교회건강과 회복을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깊은 토론 형태의 콘퍼런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시장 신상현 목사(울산비포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세대 지도자들이 역사의 뒤로 물러가고 새로운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한 차세대 지도자와

지도력이 새삼 요청되는 시점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공동체로써 교회를 만드는 지도력에 심도있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이어 “특별히 교회건강연구원이 한국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도력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지도력 문제들을 점검하고 실제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헌신의 씨앗과 노력이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초청 이유를 밝혔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교회건강 시리즈를 출판하는 등 교회와 사회의 방향성과 대안 제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제공을 통해 건강한 기독교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건강한 교회로 가는 사역을 돕는 ‘목회발전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6월 27일까지이다.

홈페이지 www.ucs.co.kr 02-747-8291

홈페이지 :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1)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2)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3)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1) 입학원서(소정양식)
- 2) 담임목사 추천서
-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4)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5)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6) 건강진단서(HIV포함)
- 7)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8) 가족관계증명서
- 9)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1)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2)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1)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2)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1)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2)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조원익 목사 은퇴 및 김찬애 담임목사 취임예배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욱 목사)는 지난 6월 6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추계교회에서 조원익 목사 성역30주년 은퇴 및 김찬애 담임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성기는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노우석 목사(행안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윤옥 목사(성신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오목사는 마 5:6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30년간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한 조원익 목사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성경에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 목마름이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개인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찬애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선서와 패 증정이 있는 후, 증경회장 류승창 목사(순



복음어울림교회)의 축사, 전홍식 목사(순복음성기는교회)의 헌금기도가 있었다. 인사말씀에서 조목사는 "3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예

배에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오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며 이후 오찬을 함께 하며 축하와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이어졌다.

최은성 목사안수 및 임직예배 드려

청주지방회

청주지방회(회장 정의섭 목사)는 지난 6월 15일(목) 오전 11시 청신교회에서 최은성 임직자의 목사 안수 및 임직예배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회장 정의섭 목사(한소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상훈 목사의 대표기도, 정의섭 목사의 성경봉독, 교단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교회)의 출 17:1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명자'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연례전 목사(순복음생수교회)의 헌금기도, 청신교회 청년부의 특송으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임직서약 및 안수식은 정의섭 안수위원장의 서약과 공포로 시작하여 정 목사를 비롯한 안수위원 노부질 목사, 김인찬 목사의 안수 및 착의식, 안수증서 및 임직패 증정이 이어졌다.

최은성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준 부모님과 가족들, 또한 주님의 심정으로 이끌어준 김인찬 목사님과 청신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임직예배와 안수식을 모두 마쳤다.



제4회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 삼신순복음교회)는 지난 6월 12일(월) 제4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증평 스포츠센터에서 가졌다.

올해로 네 번째 치러진 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지방회 24개 교회 39명의 목회자 및 사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체육부장 조재호 목사(장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오병용 목사(이연순복음교회)의 기도예배에 이어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가 빌 3:14 말씀을 본문으로 '뜻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최목사는 "경기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칙대로 경기하는 것"이라며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즐거운 체육대회가 되기를" 부탁하였다. 이어 체육위원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체육부장 조재호 목사(장대순복음교회)의 광고와 경기운영에 대한 내용을 듣고 곧바로 경기를 시작했다.

심한 하진 목사(미암교회)의 진행으로 청군(청주 동부권역 18개 교회, 팀장 유병일 목사)과 백군(청주 서부권역 18개 교회, 팀장 오병용 목사)으로 나뉘 총 8개 종목별

링, 공 물기, 투호, 농구 자유투, 배구, 족구, 피구, 탈레이)으로 경기를 가졌다. 이날 경기는 청군이 650점을 얻었고, 백군이 710점을 얻어 승리하였으며, 3부 순서에서 우승팀에게는 고급 보온병을, 준우승팀에게는 고급 후라이팬을 각각 시상했다.

한편, 이번 체육대회를 위해 지방회장이

고급 그릴 3점, 체육위원장이 자전거 1대를 각각 기증하였으며, 그 외 증경회장들과 여러 교회에서 찬조금과 상품들을 기증하여 풍성한 체육대회가 되었다. 끝으로 기념 촬영과 지방회장의 폐회 선언, 증경회장 김정수 목사(부강순복음교회)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정기 야유회 갖고 창조주 하나님 찬양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6월 13일(화)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삼교

천3길 79 삼교로 합성공원에서 정기 야유회를 가졌다. 공원에서 집결하여 1부 순서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정미자 목사(세교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성령 목사(성지교회)의 찬송인도와 대표기도, 최정용 목사(순복음민음교회)의 성경봉독, 사모일동의 특송,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목사는 시 96:1-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을 회원들에게 전파함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행강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지방회 회부를 처리하고 세교교회(담임 정미자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었으며, 맛있는 바다생선 회로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 2부 순서로 합성공원 내에 비치된 합정 내부를 관람하였는데, 합정의 크기는 약 100미터, 전폭 15미터이며 합성조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으며, 해군장병들의 내부시설을 체험하였다. 또한, 해양테마과학관과 군장갑차 등 전시된 군사시설과 무기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4D 영화를 관람하며 공통시내와 물러코스터의 가상현실을 스크린으로 체험하며 박진감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공원에 다시 집결하여 디과와 담소를 나누며 정기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신목사는 시 96:1-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을"을 회원들에게 전파함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이미경 목사(동방의빛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행강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지방회 회부를 처리하고 세교교회(담임 정미자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었으며, 맛있는 바다생선 회로 푸짐한 대접을 받았다. 2부 순서로 합성공원 내에 비치된 합정 내부를 관람하였는데, 합정의 크기는 약 100미터, 전폭 15미터이며 합성조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으며, 해군장병들의 내부시설을 체험하였다. 또한, 해양테마과학관과 군장갑차 등 전시된 군사시설과 무기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4D 영화를 관람하며 공통시내와 물러코스터의 가상현실을 스크린으로 체험하며 박진감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공원에 다시 집결하여 디과와 담소를 나누며 정기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내역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 는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 향연... ‘2017 은혜와진리 성가합창제’

‘2017 은혜와진리 성가합창제’가 지난 6월 6일 (화) 성가연합회 주최로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각 성전 성가대원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성대하고 은혜롭게 열렸다.

성가대원과 성도들은 찬양의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며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령한 자부심으로 충만하여져,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기원하였다.

성가연합회 부회장 김영일 장로의 사회로 회장 김태와 장로의 기도,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환영과 격려의 말씀, 심사위원 소개에 이어 순현호 형제와 유소과 자매의 사회로 성가합창제가 시작되었다.

은혜와진리교회 성가연합회 신하 18개 성가국에 소속된 128명 성가대원 3천 7백여 대원들 가운데 율해에는 성전별 연합성가대와 성가국별로 여러 성전이 하나의 팀을 이룬 연합성가대 등 총 11개 팀 1천 5백여 성가대원들이 출연하여 21곡의 합창으로 열띤 경연을 벌였다.

출연한 성가대마다 각기 특색 있는 찬양 무대를 연출하여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채롭고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와진리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받은 비전을 힘 있게 이루기며 예배 때마다



찬송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어서 피날레로 전 성가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희성 지휘자의 지휘와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 속에 하나가 되어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라는 찬송가를 합창할 때, 그 아름답고 거룩한 가사

와 곡조가 성전 가득 울려 퍼지며 성도들을 더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케 하였다.

이날 성가합창제에서 시흥·부천·부평·인천·시화성전 연합팀(지휘 노경란, 반주 성민희), 안양성전 A팀(지휘 남형진, 반주 김지혜), 안양성전 B팀(지휘 김선아, 반주 오은혜·김유미)이 각각 믿음상·소망상·사랑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 밖에 다른 참가팀들도 각각의 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행운권 추첨 순서가 이어져 성가대원들은 함께 신령한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총평에서 은혜와진리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회고하며 성가대원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을 치하하고, 각 성전에서 매 예배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가대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월례회 및 야유회, 창조의 하나님을 느끼며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6월 13일(화) 인천 영종도에서 6월 정기 월례회 및 야유회를 갖고 지방회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구미 은혜와진리교회에 모인 경기중앙지방회 회원들은 승합차 3대에 나눠 타고 출발하여 1시간 30분 뒤 월미도에 도착, 배를 같이 타고 영종도로 향했다.

월례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이봉기 목사(현 리울교회)의 찬양인도와 사회, 대표기도로 시작하여 회장 유석구 목사(에버데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출 3:25-31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지 못하는 자가 없게 번성하게 해주신다”며 “그러므로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될 것”을 축원하였다.

설교 후 교단단발전과 지방회 및 지방회원 교회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고 회계 김순형 목사(순복음아침빛교회)의 한글기도, 직전회장 임용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감사패 증정, 직전총회장 조남영 목사(가평순복음교회)의 축복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영종도 레일바이크를 타고 2.8km 왕복 완주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심심한 회와 매운탕으로 하기진 배를 채우고 해안을 따라 산책하며 아름다운 영종도를 눈으로 담았다.

이날 회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날씨와 경치, 설감이 어우러진 기분 좋은 모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6차 총회 제1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1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제2차 한국교회 본질회복성회’ 성료

초대교회의 삶과 예배 공유하면서 십과 묵상의 시간으로 진행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제2차 한국교회 본질회복성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724-132 소재 영흥도우성리조트에서 진행됐다.

민족사랑교회(담임 유수영 목사)가 주관하고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목 목사),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대표회장 배진구 목사), 피루시아비전선교회(회장 김천기 목사) 등이 후원한 이번 성회에서는 철저한 동화지복과 초대교회의 삶과 예배를 공유하면서 십과 묵상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개회예배는 김영신 목사(명령일직교회)의 사회로 진행, 이강욱 장로(예장개혁신부총회장)의 환영사 등에 이어 박영길 목사(명문교회)가 요 21:1-6 말씀을 본문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배진구 목사(한기총 사무총장)와 고종권 목사(의국인무지개교회)의 격려사, 최희용 목사(예장 개혁신부)와 김상욱 목사(보배교회)의 축사 후에는 ‘통일한 국대통령, 국민대통합, 민족복음화와 교회본질 회복, 축복의 통로, 중국시장과 복지회복을 위해’ 각각 최삼구 목사(예목교회)와 조승욱 목사(주나드교회), 송우강 목사(우림교회)가 특별기도를 했다.

이해왕 목사(선교하는교회)의 광고 후에는 조정대 목사(중앙중앙교회)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 강사는 박분희 선교사(탈북교회)와 강준오 목사(교회연합신부발행인), 이병진 원장(광명이 사랑치과), 김천기 목사(한동교회), 이선 목사(봉담중앙교회), 이교원 목사(민족사랑교회), 이해훈 집사(국



회의원), 오기동 목사(금광교회)가 강사로 나서서 ‘고난 속에 만난 주님’, ‘한국교회의 오늘과 내일’, ‘성경의 보석들’, ‘하나님의 우주적 프로젝트’ ‘긴장한 교회’ ‘중국시장과 나무심기’, ‘피수꾼의 사명’, ‘교회의 시작’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했다.

민족사랑교회 유수영 목사는 “한국교회의 본질회복은 내 영광과 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가능하다.”면서 “이는 이 민족을 위해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이런 목표를 살아가다 보면 한국교회에 말할 수 없는 개혁과 회복이 도래할 것”이라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강욱 장로(개혁 부총회장)는 “한국교회의 본질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복신앙을 타파해야 한다”라면서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로 귀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우리 안

에 예수가 어느 정도나 있는가. 우리 삶에서 예수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본질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김천기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교회는 항상 부흥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한국교회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의 준비위원으로 앉아서 섬겨온 이해왕 목사는 “혼탁한 시대를 일깨우는 준비된 강사들을 통하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에 한국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제3차 한국교회 본질회복성회는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라며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다.

균형된 사회를 이뤄가는 올바른 여성정책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최,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 위한 제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한일 박사)이 주최하고 종신대학교신학대학원 여동분회(회장 서영희 목사)가 주관한 ‘여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언-국회 여성정책포럼’이 지난 6월 12일(월)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250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육회 중경회장(종신대학교신학대학원 여동분회)의 사회로 개최된 포럼에서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우리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차별없이 균형된 사회를 이루아가는 올바른 여성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포럼의 결과물정책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용필 회장(한국독립교회신교단제연합회)은 “기독교 성학들이 모여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이해와 실천을 위한 포럼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으며, 이정숙 총장(옛볼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교)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성들처럼 이 시대 여성 사역자들의 사명을 깨닫고 정진하는 계기가 되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주최한 장한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한국교회 리더십에 각 분야 여성 리더십 참여가 적극적으로 확대돼 교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과 전문성으로 전문목회 영역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여성교계지도자의 헌신과 결단의 국회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을 총괄 주관한 서영희 회장(종신대학교신학대학원 여동분회)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뛰어난 잠재력을 국가 발전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여성 리더십을 존중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성 리더십을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주체적인 여성사역자로서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부 주제발표에서 박유미 부회장(종신대학교신학대학원 여동분회)의 사회로 제1주제 ‘여자는 권세 아래 있다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황영자 박사(종신대학교 신약학)는 고전 11:10 본문은 기존해석에서 문법적 해석으로 “여자는 자기의 권위인 남자에게 권위를 가져 마땅하다”로 해석하고, 11절 12절에서 “남자도 여자의 원천인 것처럼 여자도 모든 사람의 원천이 되며, 모든 사람의 원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인격적 동질성과 동등성을 회복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어린이 애니메이션 제작

(사)세기총, (사)빅스타임코리아와 MOU 맺어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세기총,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와 (주)빅스타임코리아(대표 박재희)는 지난 6월 12일(월) 오전 11시 세기총 회의실에서 수준 높은 양질의 크리스천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제작,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다음 세대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한 상호교류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애니메이션 제작과 보급을 통하여 다가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성경적 교훈을 교육하고 유년 주일학교의 학생이 감소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아이들이 보다 좋은 호감을 가지고 신앙적인 생활에 적응케 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행사진행에서는 사무총장인광수목사의 사회와 중경대표회장장성진목사의 기도로, 세기총황의춘목사와 빅스타임코리아대표 박재희가 협약서에서명을 했다.

(사)빅스타임코리아(대표 박재희)는 미국 산티페 커뮤니케이션즈와 공동 제작 1000만불 제작비를 들인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10년 동안 기획·제작한 어린이 성경 애니메이션 대작 ‘빅스 타임 어드벤처(제작 및 감독 신민철) 시즌2’를 한국파트너인 (사)빅스타임코리아에서 이달 제작에 들어가 2018년 출시에 정이라고 밝혔다.

‘빅스 타임 어드벤처’는 미국의 산티페 커뮤니케이션즈와 세계 어린이 애니메이션 유통사인 콘스터가 기획과 전 세계 유통을 맡고, 한국의 (사)빅스타임코리아가 제작하는 3D애니메이션으로, 총제작비 1,000만불 이상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아시아 시장 중국, 인도, 몽골 등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나라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현장 아이들 교육환경 선물해 주세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벽돌노동 아동 대형사진 전시

글로벌이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은 지난 6월 12일(월) 세계 아동노동 반대 날을 맞아 서울종로구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외벽에 10m길이의 벽돌노동 아동대형사진을 오는 28일까지 보름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세계에서 노동으로 고통 받는 아동 중 특히 벽돌노동으로 고된 일상을 보내는 아동의 모습이 광고용 이미지로 구현됐다.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합 마케팅 에이전시 아이디어의 아이디어로 제작됐으며, 실제 벽돌 건물에 벽돌노동 아동 사진을 조합한 형태로 아동노동 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3배에 달하는 전 세계 5-17세 아동 1억6천800만 명이 아동노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중 8,500만 명의 아동은 가혹한 형태의 노동에 해당하는 ‘아동 노예’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프리카 케냐의 빈곤아동들은 수도 나이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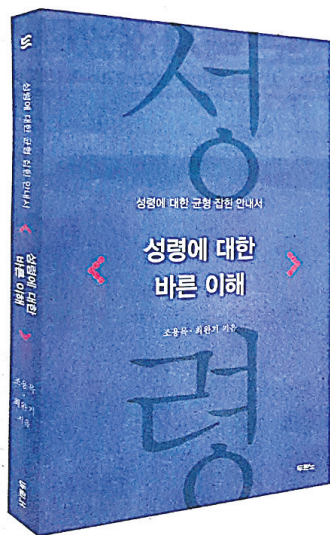
빈민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두를 뒤어 돈을 받기도 하고 쓰레기 및 고철을 줍거나 좀 더 형편이 나은 집의 빨래를 대신 해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케냐의 나이로비 슬럼가에 살고 있는 일곱 살 소녀 마리(가명)는 하루에 한화 1천 원 가량을 받고 매일 이웃집 빨래를 대신 해주고 있다. 국제어린이재단연맹 케냐 국가사무소의 한 직원은 “아이에게 빨래 대신 하고 싶은 걸 물어보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며 교육지원의 시급성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노동 및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들을 위해 케냐를 비롯한 9개 사업국가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마사이 부족 여자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센터 건설 및 운영을 통해 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아동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아동보호 체계 구축 및 여아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히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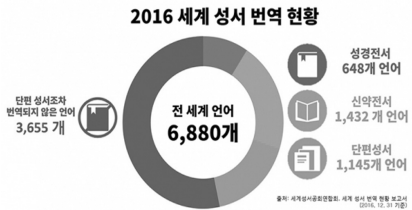
전세계 성서 3,225개 언어로 번역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3,225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발표한 '2016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Global Scripture Access Report 2016)'에 따르면, 전 세계 6,880개의 언어 중에 성경전서 648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으며, 신약전서는 1,432개, 단편(쪽복음)은 1,145개의 언어로 번역됐다.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기존 번역본을 개정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2016년 기준 28개의 새로운 번역본 및 개정본과 3개의 해설 성경이 출간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약 9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30개 언어의 첫 번역이 이루어진 해로, 이 중 첫 번역 성경전서는 17개, 신약전서는 6



개, 단편성서는 7개에 이른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현재 400개 이상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역이 된 648개의 언어 중 대한성서공회는 카메룬의 무스굼어(Musgum), 캅시키어(Kapsik) 첫 번역 성경의 조판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간다의 루마바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 후원회원과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제작, 출판되었고, 5,100부의 성경이 기증되었다.

교회들의 이야기...신앙생활 간증

CTS기독교TV, '교회행진' 100회 특집 방송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 이하 CTS는 전국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해 사역을 소개하고 성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 '교회행진' 100회 특집방송을 지난 6월 19일(월) 오후 3시 40분에 방송했다.

2015년 5월에 첫 녹화를 시작한 '교회행진'은 지난 2년여 간 전국의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절정 하고도 때로는 가슴 아픈 시련과 삶의 간증들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번 100회 특집 '교회행진'은 김정철 목사의 진행을 통해 그간 출연했던 성도들을 모시고 간증 이후의 삶에 대해 나누는 '힐링 시간'과 특별히 '치신', 내 삶은 주의 것'을 부른 김명선 전도사와 PK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장광우 목사를 게스트로 모셔, 신앙의 여자들의



간증과 찬양을 듣는 특집 방송으로 꾸며졌다. 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올레TV 236번,

SK BTV 301번, LG U+ 180번), 해외 위성, CTS APP을 통해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해외동포두리두리사랑회 정기포럼

'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헌신 26년' 주제

해외동포두리두리사랑회(회장 김철수 박사) 제3차 정기포럼이 지난 6월 2일(금)부터 3일(토)까지 열렸다.

장애인들의 직업교육과 복지를 위한 헌신의 세월 26년이란 주제로 중국 현지에서 지난 1992년부터 최근까지 거주하면서 장애인 직업훈련과 교육을 펼쳐온 김부식 박사의 주제 강연과 앞으로의 전망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토의를 갖는 한편 동회가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온 제반 사업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를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해 기록으로 남기는 출판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해외동포사랑회는 지난 1991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전부터 중국조선족소년보와 흑룡강조선족출판사, 길림시 도리지문화사, 묵단강시 조선족 도서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조선족들의 민족 정체성을 되살리고 보

존하는 정신사업과 자라나는 조선족 후대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교양도서 무상지원사업, 독립투사 유가족 돕기 사업 등을 순수한 민간지원에서 전개해왔다.

특히 동회는 독립투사 백야 김좌진 장군의 딸 고 김강석 여사를 찾아 매일 생활비를 지원해나가 하던 <옛 별소년문학상>, <새별 교원 수필문학상>, <도리지문학상>, <백두아동문학상>, <백두청소년문학상>, <두만강교마작가상> 등을 제정, 해마다 회원들이 중국 현지를 찾아가 시상식을 갖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모임의 회장 김철수 박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역을 통해 전 세계에 나가 살고 있는 73만 해외동포들이 흩어져 있는 민족자원으로 생각하고 돕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내가 찾던 능력전도

저는 구미에서 개척한 지 8개월째 접어드는 52세 늦깎이 권영철 전도사입니다. 개척교회에서 전도는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길에서 전도하는 전통적인 노랑전도에 회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물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면서 교회에 나와 달라고 사정하는 듯한 분위기는 민망의 왕이신 하나님의 격을 낮추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전도의 방법도 찾지 못해서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박영수 목사님의 가족세트전도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현장인 안동의 작은 시골교회인 오산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15명 내외로 단촐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수 목사님이 직접 전도하는 전도영상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더더기 많았던 "저는 서울에서 온 목사입니다. 축복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라면서 곧바로 전도대상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상태에서 1분간의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자녀들의 이름과 생일 등의 인적사항을 받아내고, 곧바로 지역교회 담임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게 하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교회패를 그 집 문설주에 붙이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가능하다고 믿었던 제 고 정관념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말씀에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를 받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가족세트전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물이나 미사여구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시간의 이론전도세미나를 마치고 감사 목사님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 전, 점심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 후 그 식당의 아들과 식당 주인에게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고, 손님 3명에게도 영접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들어가서도 동네 어르신들이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능력의 전도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세미나를 통해 전도이론과 실습을 함께 해주는 감사 목사님을 만난 것은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교회에 돌아가면 능력의 가족세트전도로 힘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기쁨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가족세트전도를 만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가족세트전도와 함께 저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감사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구미 동일교회 권영철 전도사 -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장기기증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부산 성산교회(담임 최우성 목사), 장기기증 서약예배로 성도 131명 장기기증 서약

지난 6월 11일(주일), 생령나눔을 약속하는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전국 8개 교회에서 드려졌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성산교회(담임 목사 최우성)에서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식을 진행했다. 1947년 7월 6일에 설립된 성산교회는 올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자 6월 11일을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날'로 정하며 주일 오전예배와 청년예배를 통해 생령나눔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알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최우성 목사는 서약식에 앞서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가치있는 일을 하고자 장기기증 서약식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자"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그 결과 총 131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또한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남문교회(담임 목사



이건희)에서도 사랑의장기기증서약식이 진행됐다. 남문교회는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최은식 목사를 특별히 초청하였고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최은식 목사는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생령나눔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알

리며 등록을 이끌었다. 이건희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자!"고 말씀을 전하며 남문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총 158명의 남문교회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였다.

부산과 서울을 넘어 경북 구미, 충북 제천 지역에서도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눔교회(담임 목사 조영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광교회(담임 목사 황성환),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침빛교회(담임 목사 박순호), 성은교회(담임 목사 홍기웅), 경북 구미에 위치한 남구미교회(담임 목사 김형진), 충북 제천에 위치한 구산교회(담임 목사 김영선)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전국 8개의 교회에서 사랑의장기기증서약예배가 드려져 총 553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하였다.

-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비단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19,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단종무휴 365일 주문접수)

2017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5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제: 'The Goal'
(부제: The Highest calling)"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 빌 3:14 -

♡♡ 모시는글

존경하는 교단산하 목사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영혼을 위해 애쓰시며,

진리를 위해 교단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단내 미자립교회 및 소규모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지방회별로 팀을 이루어 연합하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 제5회 청소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올림-

- 일 정 : 2017년 7월 31일(월) ~ 8월 2일(수) 2박3일간
- 장 소 : 대림벤엘교회 평창수양관(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저길 21-4)
- 주 제 : 'The Goal' (빌 3:14)
(부제: The Highest calling)
- 프로그램 : 만남(OT) & 레크레이션, 경배와 찬양, 부흥회, 찬양콘서트, 특강, 공동체훈련, 장기자랑, 발표(간증)
- 대 상 : 본 교단 산하 전국 각 교회 중 · 고등부
- 등 록 비 : 70,000원(식대, 숙박비, 교재비 일체 포함)
- 접수방법 : 전화 신청 후 1인당 1만원 계좌송금(선착순 마감)
미자립교회는 상담 후 등록비 조정 가능함
- 접수 및 문의
 - ①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02)845-5095, FAX. 02)845-5097
 - ② 이영옥 전도사 : 010-4206-4006
- 등록비입금 및 후원금 계좌 : 외환은행 191-18-47059-4(예금주 임형순)

고문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여자교회 담임

대회장

김양인 목사
교단 총회장
목양제일교회 담임

진행 위원장

조선남 목사
대림벤엘교회 담임오세준 목사
참좋은교회 담임

진행 위원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담임임형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담임변원식 목사
창조교회 담임배윤호 목사
안디옥교회권승철 목사
남원중앙교회

준비위원

강수용 전도사(대림벤엘교회)
이영옥 전도사(대림벤엘교회)
고대운 전도사(순복음아멘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육국 후원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및 각 지방회, 대림벤엘교회 교육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입니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종교인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우리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에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킨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정책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및 다양한 소득원천과 지급 방법 등 종전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 및 종교의 정치참여 가속화 유발이라는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종교인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각 교단의 헌법과 각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등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연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 이 극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이나 세무교육체계 등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일정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분당중앙교회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종교인과세 대책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한국기독교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교회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는 종교인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당국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양자 간에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2018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종교인과세 시행시기를 유예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과세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부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적으로 발달되지 않은 영적

구도단체인 교회가 과세시행의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교계 대표들과 대화와 소통의 협의 장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라도 종교인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금납부 대신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대체방범 등도 포함하여 검토·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각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가운데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는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 상이한 예산 수입 및 지출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미비하고, 교회의 각종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비비 항목에 한정하여 과세를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범위로 한정하여 과세할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공회성 강화를 통해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회재정 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직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등 투명한 재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인사를 망치면, 만사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합당한가?

다수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인권의 본질로 본다면, ‘인권’이란 지독하게 편향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인사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의 생각이다.

안경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던 곳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었다. 당시에 국민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되겠는가?

소위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은 절대 다수를 ‘역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법의 본질인지 묻고 싶다.

안 후보자는 특정 세제를 편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고,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일한 경험으로, 대다수 국민들을 강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권익은 누가 지키는가?

또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2010년에 처음 만든 사람이 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지므로 결국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 권리, 공부 덜 하고 놀 권리, 정치적

표현의 권리를 주었던 것이다.

또 동성애 확산과 음란으로 학생들 사이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졌다. 오죽하면 인격형성과 공부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섹스할 권리’까지 들고 나왔겠는가?

그는 또 교육예산을 학생들의 급식비로 돌려서, ‘무상’ ‘공짜’를 유행시켰다. 그런가 하면, ‘혁신학교’를 만들어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자사고(특목고)는 폐지한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교육현장은 ‘편 가르기’로 소란하다.

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능력도 떨어졌다. 공교육이 부실하면, 사교육비만 더 늘어난다. 피해는 누가 보는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들이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일부 교육청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그게 누군가? 문재인 정부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세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과 교육공약 설계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보은(報恩) 인사인가? ‘탕평책’과는 한

참 거리가 먼 인선이다.

더군다나 김상곤 후보자는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200군데 이상에서 표절의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어찌 교육수장이 정직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미국에서도 학생들에게 한동안 ‘표현의 자유’를 만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제점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이)’ 다른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로 향유될 수 없고, 학교 환경의 특수성의 견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지금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우리 사회를 급진적인 진보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후보자 철회를 해야 마땅하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나서서 우리 사회의 미래와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철저하게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정 의 일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야 한다.

- 한국교회언론회 -

사 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6.25 남침전쟁 67주년을 맞아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최 고조된 가운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게 더욱 다짐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정책에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공조 노선에서 벗어난 언동을 내놓고 있어 이에 우리 국민들은 우려와 불안 속에 날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67년 전 북괴의 가슴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은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저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등 21개국, 194만 1천여 명의 용사들을 참전케 하여 공산화 망국 위기에 처한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 전쟁에서 특히 미국은 모두 180만의 젊은이들을 파병하였고 그중 6만 4천여 명이 알지 못하는 우리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전사한 국군 장병은 13만 7천 889명이었다. 후일 박정희 대통령 시대 우리나라는 이에 보답하는 의미도 담아 연 30만의 국군을 월남에 파병하여 공산군 섬벌에 동참하게 하였고 국군 장병 5천여 명이 전사하였다. 한미 동맹은 이처럼 피로 얹힌 역사 속에 다져져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민주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주동력이었지만 한미 동맹의 철통같은 안보·외교적 안전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는 북방의 앗수르와 바벨론이란 강력한 세력과, 국경을 인접한 강대국 애굽과의 틈바구니에 들어 있는 약소국으로서 참으로 지혜로운 안보 외교를 전개해야 할 처지였음을 볼 수 있다. 결국 강대국 관계 실패로 주전 686년 바벨론에게 완전 함락되어 방국의 비운을 당했다.

예언자 이사야(740-690BC), 예레미야(625-585BC), 에스겔(603-570BC) 등은 대대로 왕들을 거쳐 가면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굽을 결코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 이유는 애굽은 강대국이긴 하나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나라이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혀 왔다는 점, 그리고 국가 안보는 “병자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먼저 비로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의 국운이 기울어 가던 말기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 등이 선지자의 충언을 외면하고 군사력이 강력한 애굽에 더 의지하고 북방 강대국과 적대적 자세를 취하다 미움을 받아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르러 민족의 포로와 국가의 멸망을 당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안보 질서와 관련하여 교훈을 삼을 만한 말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심과 애국심, 애국심과 신앙심은 동심원(同心圓)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하늘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나라가 어지러우면 하늘나라의 신앙도 지키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다.

과거 바벨론 포로로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당했다. 오늘날 저 폭악자 김정은 치하의 북한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물론 전교를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라 신앙의 자유권지이다. 나라를 잃으면 신앙의 자유도 민족의 생존도 찬란한 문화의 자랑도 다 사라진다. 제 때 잃은 국민은 온 세상이 외면하는 유방민 신세가 된다. 오늘날 저 지중해를 건너 탈출 난민의 길을 가다 지중해 바다에 빠져죽어 가는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난민들의 모습을 보라. 내 조국이 혼란하고 위태롭게 되면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환영할 곳은 없다는 이 냉엄한 지구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한국민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나라를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만 행동이라도 애국심을 실현하자. 그리하여 그릇된 정신과 이념에 날뛰는 무리들을 척결하고 이 나라를 정의와 자유와 신앙의 터전으로 지키는 데 앞장서자.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예 3:15,16)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017 GNTC창작뮤지컬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을 뮤지컬로



GNTC 뮤지컬의 창작뮤지컬 '다 이루었다'가 지난 5월 28일 은혜와진리교회 카이노스성전에서 첫 공연을 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뮤지컬 '다 이루었다'는 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을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 성경말씀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말씀 그대로를 창작공연으로 작품화하여 기독교공연문화를 열어가는 GNTC뮤지컬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예언의 말씀들을 왜곡 없이 충실하게 각색하여 공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식과 믿음을 더하게 하고 아울러 감동과 즐거움을 얻도록 헌신해 왔다.

2007년 '토마스선교사'를 첫 무대에 올린 GNTC뮤지컬은 2008년에 '돌아오라 내 아들이', 2009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2010년에 '메시아', 2011년에 '노아의 방주', 2012년에 '소돔과 고모라' 2015년에 '휴거' (카이노스 성전 공연), 2017년에 '다 이루었다' (카이노스 성전 공연)를 올리며 기독교공연문화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는 2012년 1월 전원성전에서 열린 신년축복성회에서 공연되었으며,

그 해 8월에는 해외 원정 공연길에 올라 미국 뉴욕 Promise Church에서 열린 해외 첫 번째 공연에서 큰 반응과 함께 한국교회 최초의 해외 창작 뮤지컬 공연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무대에 올려진 GNTC창작뮤지컬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으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는 순간에 외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정복자의 승리 선언보다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며 그 어떤 법률적 보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이며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확증이기 때문이다.

GNTC창작뮤지컬 '다 이루었다'는 1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65명의 배우와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참여한 순수 창작작품으로 실제 갈릴리 바다를 연상시키는 영상과 무대, 소품들과 19곡의 창작곡들 모두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창작된 수준 높고 역동적인 뮤지컬이다.

이번 뮤지컬공연은 1차(5/28~6/18), 2차(7/2~7/23), 3차(8/13~9/17)에 걸쳐 사전접수를 통해 지정좌석제로 진행하며,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 자수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공연 접수는 은혜와진리교회 각 성전 교구실을 통해 진행되며 (문의: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031-443-3731~2), 복음전도를 위해 누구에게나 개방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